광주

"'1등 광주 건설'로 광주를 첨단과학산업의 명품도시로 만든다."

만년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광주시의 무자년 시정의 화두는 '도약'이다. 수준높은 문화와 삶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고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광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 2005년 추진한 1등 광주 건설 계획의 4년차를 맞는 올해 광주시정의 목표는 그동안 이어온 지역의 상승세에 속도를 더해 지역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전략으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 시정의 중점 추진과제를 ▲첨단 산업도시 기반구축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 본격 추진 ▲체계적인 도시마케팅 추진 ▲선진복지 도시 실현 ▲녹색환경도시 조성 ▲매트로 폴리탄 신 광주 건설 토대 구축으로 설정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와 디지털 가전 산업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 5대 광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생산도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또 금형산업, 첨단부품소재 산업 등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과 미래 지역경제를 견인할 전자금융산업, 로봇산업, 신· 재생 에너지 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역산업 육성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2010년까지 13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광주의 미래상을 담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문화전당 건립 본공사에 들어가는 등 본격화된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조성사업에 발맞춰 문화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구동체육관 부지에는 빛고을 문화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고 구동시장과 광주향교 일대에는 시민문화공원과 아시아 전통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유치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문화를 산업화할 수 있는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사업 등도 추진된다.

빛고을 광주의 정체성을 살린 체계적인 도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광엑스포','빛의 축제' 개최 준비,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등도 적극 추진된다.

또 광주를 국제교류와 관광의 거점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0년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2008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제' 개최 준비도 진행된다.

경제 성장위주의 시정에서 벗어나 '노인 복지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도 닻을 올린다.

광주시를 '노인 복지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남구 노대동 일대에 100만여㎡ 규모의 노인 의료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노인복지 도시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이곳에는 퇴행성노인질환병원, 요양원, 복지센터, 골프장 등 노인 건강과 문화, 레저, 주거 기능이 복합된 '노인들의 천국'으로 조성된다.

특히 세계적인 노인의료기기 생산도시로 우뚝서기 위한 '노인 건강의료기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생활주변 숲이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새해에도 범 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내실있는 운영 등 대중교통이 시민들에게 편리한 발이 되도록 하고 서남권 중추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장성-담양-화순-나주를 잇는 제3순환도로 건설 등 광역 교통망 확충사업도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이 광산구 옥동까지 완전 개통되며 지상 고가방식의 2호선 건설사업도 기본계획변경 등을 통해 본격화된다.

광주· 전남 상생번영의 새 모델이 될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광주 인접 시군을 연계한 경제통합 등 신 광주 메트로폴리탄 기반 구축사업도 진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08 光州日報 테마

이젠 도약이다

저 힘찬 날갯짓처럼…새 희망으로 날자

문화전당 건립 본공사 착수

신성장 동력산업 적극 육성

문화·첨단 어울린 '명품도시'로

고니떼의 비상

▲0이른 아침 강진만의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고니떼의 날개 위에 맑은 새 햇살이 찬란하다. 오랜 소외를 떨치고 번영의 미래를 준비해온 광주·전남은 저 고니들의 상쾌한 도약처럼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는 힘차게 뛰어올라야 한다. /나명주기자 mjna@

▶광주· 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될 무자년이 밝았다.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 본격화, 무안국제 공항 개항, 여수엑스포 개최성공 등 성장의 호기를 맞고 있는 광주· 전남이 역동적으로 웅비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亞문화전당 건립 본격화

무안공항 활성화

여수엑스포 준비 꼼꼼히

전남

"동북아 해양 경영의 중심지 건설, 1천개 기업 유치"

전남도가 2008년부터 만년 낙후 지역의 오명을 떨어내고 힘차게 도약한다. 전남도는 올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로 비상의 나래를 펼친다.

전남도는 우선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세계인의 축제로 완벽하게 준비해 전남을 세계 5대 해양강국 실현의 거점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원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구성 등 박람회 추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SOC 확충(총 17건, 9조9천억원)과 지역 및 세계의 유산으로 남을 아쿠아리움 등 상징물을 건립한다.

또한 해양경영을 통한 지역의 부(富) 창출을 위해 조선산업과 해양 관광, 해양생물 등 해양 자원의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우선 자족형 조선산업 건설(신안 압해, 고흥 도양), 중대형 조선소 지원,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세계적 조선산업의 메카를 조성한다. 동시에 섬 관광자원화 사업, 해양테마리조트 조성, 해양생물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해양경영을 완성하기 위해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륙·연도교 건설, 해상물류 거점항만으로 광양항 '컨'부두와 목포신항을 집중건설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향후 3년 이내에 1천개의 기업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산업용지 확보로 미래산업을 균형적으로 육성하는 등 투자유치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정 전반을 총력 투자유치 체제로 운영하고 수도권 7개 팀과 영남권 2개 팀 등 권역별 전담 유치팀 편성, 투자유치 실명제 및 보상제, 전 도민이 함께하는 1읍면동 1기업 유치 운동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여수엑스포·서남권 개발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동북아 해양 경영 중심지로

또 권역별 특성화를 통한 미래산업의 균형적 육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다.

광주근교권에 나노·바이오·생명의학·정보통신·에너지, 동부권에 우주항공·정밀화학·신소재·지능형물류, 서남권에 특수조선·세라믹·신재생에너지·기능성식품, 중남부권에 한방의료·친환경생명·해양바이오·천연자원산업화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한다.

여기에다 그동안 산업화의 변방에 머물렀던 천일염과 한방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비교우위 천연자원을 신기술과 마케팅을 접목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과 함께 로봇산업 육성 5개년 계획도 수립했다.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서남권의 종합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2010년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개최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무안국제공항을 환황해권 거점 공항으로 집중 육성하고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과 성장거점 사이 연계 개발을 촉진하는 고속교통망(무안~광주 완공, 목포~광양 건설, 호남고속철 무안국제공항 경유)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한편 친환경 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박준영 지사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역점을 둬 추진해 온 지속사업이다.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 4차년도인 새해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전체 경지의 22% 수준으로 확대하고 생산자 조직화 및 대체작목 보급 확대,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동계훈련장 조성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고 요트를 비롯한 지역특화 레저스포츠를 육성하는 등 문화·포츠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관광객을 끌어 들인다는 구상이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과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을 확대해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